

[번역]

오늘날의 세계 정세에서 비그리스도교 국가의 사회 정치 생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기여*

■
장면(요한)**

[1899~1966, 정치가]

권정애 옮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전국위원회]

* 이 글은 로마에서 열린 제2차 세계 평신도사도직 대회를 맞아 SHEED AND WARD 출판사에서 1958년에 펴낸 *WORLD CRISIS AND THE CATHOLIC* 제4장에 실린 장면(요한)의 기고문 “The Christian Contribution to the Social and Political Life of Non-Christian Country in the Present World Situation”을 번역한 것이다.

** 원문의 편집자주: 장면(요한)은 1899년 8월 28일에 (한국)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는 1925년에 뉴욕의 맨해튼 대학을 졸업했다. 1931년까지 한국의 메리놀외방전교회의 일을 돕다가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동성상업학교의 교장이 되었고, 1946년까지 그곳에서 재직하였다.

장면은 1946년에 민주위원으로 선출되었고, 1946~1947년에는 과도입법의원으로, 1948년에는 제헌의원으로서 선출되었다. 같은 해, 그는 대한민국 사절단을 이끌고 제3차 유엔총회에 참석하였고, 특사단장으로 교황청을 방문하였다. 1949년부터 1951년까지 초대 주미대사를 지냈다. 1950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에 특사단장으로 파견되었고, (한국전 문제를 다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한국대표로 파견되었다. 장면은 1950년부터 1952년까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역임하였고, 1955년에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56년에는 대한민국의 부통령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장면은 맨해튼 대학과 포드햄 대학교에서 명예 법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교황청으로부터 성 실베스테르 기사 훈장을 받았다.

그는 간추린 한국천주교회를 집필한 외에도 기번스(Gibbons) 추기경의 저서인 「교부들의 신앙」(*The Faith of our Fathers*)과 코글란(Coghlan) 신부의 저서 「젬마 갈가니」(*St. Gemma Galgane*)를 번역하였다.

장면 박사의 다섯 아들 중 3명은 신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두 딸 중의 한 명은 노트담 드 나무르회의 수녀이다.

비그리스도교 국가들의 종교적 상황
 종교와 사회-정치 생활
 개별 가톨릭 신자의 역할
 가톨릭 정치가(statesman)와 정치인(politician)의 영향
 가톨릭 교육자들의 사도직
 노동자 계층
 기술적 도움
 가톨릭 사회 봉사의 역할
 말의 힘
 세계적 위기와 가톨릭
 교회와 신생 국가들

비그리스도교 국가의 정치 생활에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얼핏 보면 현실성이 없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이 국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사이에는 흔히 매우 크고 분명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많은 경우에, 단순한 수적 약세 외에도 두드러지는 더욱 큰 장애물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러한 과업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는 상당수의 나라들, 적어도 이곳 극동 국가들에서는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든, 이는 분명 우리 소수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이들 나라의 사회-정치 생활에 확실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를 준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의 머리에 떠오르는 또 다른 생각은, 이러한 상황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전 세계에 뻗어 있는 커다란 영적 종교적 조직인 가톨릭교회 전체가 이들 수많은 비그리스도교 국가들의 대중들에게서 큰 명성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회에 대한 높은 존중은 교회의 세계적 영향과 명성, 국제적 위상, 공산주의에 대한 강력한 저항, 이들 비그리스도교 국가들에 서조차도 여론의 주목을 받는 국제 윤리에 대한 공공연하고 흔히 는 도전적인 선언들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여기에

덧붙여 비오 11세와 현 교황이신 비오 12세의 품성이 적과 아군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전 세계에 펼치고 있는 인상적인 자선 활동과, 가톨릭 신자들 간의 믿음과 사랑 안에 일치된 마음이다. 이러한 일치 정신은 그들로 하여금 박해를 받으면서도 영웅적으로 저항하게 하고 순교도 마다하지 않도록 이끌었다.

이들 나라에서 교회에 대한 이러한 높은 존중은 소수 가톨릭 신자들의 실질적인 힘과 영향력과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가톨릭 지도자들이 자기 국민들 사이에서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며, 그들 모두에게 교회의 이러한 명성과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교회의 높은 기준에 걸맞은 삶을 살도록 촉구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수적으로도 부족하고, 지적 영적으로도 준비가 덜 되어 있으며, 흔히 그 일에 필요한 물질적 수단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 일이 그들의 능력을 벗어나는 도전이며 과업이라는 것을 자주 깨닫게 될 것이다.

비그리스도교 국가들의 종교적 상황

여기서 비그리스도교 국가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갖는 생각은, 이들 국가들이 그리스도교 정신과 종교의 지속적인 영향을 받은 적이 없고 지금도 이교(異敎)가 우세한 나라들이라는 것이다. 이 나라들에서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법에 대한 참된 지식이 거의 전무하고, 자연법과 그리스도교의 윤리 원칙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음을 흔히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들, 특히 이곳 극동 아시아 국가들은 더 이상 16세기나 18세기 또는 19세기의 ‘이교 국가들’이 아니다. 이 나라들은 19세기와 20세기의 세속주의의 영향 아래서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으로 사고와 구조에서 깊은 변화를 겪어 왔고 지금도 겪고 있다. 이들 나라의 신세대들은 전통과 결부된 오랜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 유대, 흔히 자연법의 수많은 귀중한 가치들과 진리들에서

영감을 받았고 그러한 가치와 진리들로 충만한 전통과의 끈과 유대를 끊어버리고 있다. 자라나는 세대들의 텅 빈 마음과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세속주의, 유물론, 실증주의, 공산주의 ‘철학’이 이들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진리와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 유일한 이상을 제공해 주는 듯하다. 이들 나라들이 유물론과 공산주의의 그릇된 가치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이 이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이들 나라의 사회-정치 생활(개인 생활뿐 아니라)에는 우리 시대의 지배적 오류에 감염된 바이러스를 퇴치할 힘과 해결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저변에 깔린 그리스교적 실체가 없다. 이 점이 서양 국가들의 삶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서양 국가들은 사실상 거의 비그리스도교 국가라고 불릴 정도지만 그럼에도 그 밑바닥에는 그리스도교 정신과 사상이 여전히 강력하고 활발하게 살아있다. 우리 비그리스도교 국가들의 젊은 세대는 절대적인 종교적 도덕적 허무주의에 자기도 모르게 급속히 빠져들고 있어 이러한 위험한 사조를 막거나 늦출 방법이 없어 보인다.

종교와 사회-정치 생활

“인간의 삶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가피하게 또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법과 정신을 접하게 된다. 따라서 상황에 의해, **종교 사도직과 정치 활동** 사이에는 상호간에 동반 침투가 일어난다. 정치란, 가장 높은 의미에서, 다른 아닌 국가(polis)의 선익을 위한 협력을 뜻한다”(교황 비오 12세, 제1차 세계 평신도 사도직 대회 연설, 1951년 10월 14일). 따라서 도덕적 종교적으로 최고의 중요성을 지닌 수많은 문제들이 국가와 민족의 선익과 관련되어 있어서, 교황 성하께서는 그러한 문제들에 “사도라면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 물론 교회가 사람들의 정치 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가장 중요한 사회-정치 생활의 영역을 “국사(國事)를 이끌어가기에 부적합

하거나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맡겨둘 수는 없는 일이며, 또 맡겨서도 안 될 것이다. 교황 성하께서는 “당쟁을 부추길 수 있는 싸움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 경고하시면서도,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각자 자기 능력껏 특별한 소명에 따라 자기 나라의 공생활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것을 ‘그리스도교화’하는 일에 본분을 다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신다.

개별 가톨릭 신자의 역할

가톨릭 신자 개개인은 자기 민족의 안녕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한다. 그는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생활을 엄격히 그리스도교 원칙에 따라 영위함으로써 국가의 공생활 분위기 전체를 안정적으로 고양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가톨릭 신자로서 최선을 다해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는 모든 사도직의 근본 원칙이다. 하지만 먼저 자기 가족과 자신이 활동하는 단체와 공동체를 그리스도교화함으로써 비그리스도교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는 일반 국민과 자기 나라의 정치, 사회 생활 전반에 영향력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 자신이 하는 말,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기회에 그리스도교의 이상이 살아 있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활동하시도록 해야 한다.

가톨릭 신자 개개인이 할 일은 그리스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수를 해 나가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서 “밭을 갈고” 씨를 심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다. 이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가톨릭 신자 개개인의 임무이다. 사람들의 공생활 전반에 미치는 그리스도인의 영향은 눈에 띄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서서히 확실하게 그 속에 스며들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더욱 직접적인 사도직 활동을 펼치는 데 놀라운 힘을 발휘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러한 토대가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국민과 그들 나라의 정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견고한

뿌리와 힘이 없어 설득력을 지니지 못할 것이다.

가톨릭 정치가(statesman)와 정치인(politician)의 영향

현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압제 대 자유의 대결이다. 압제는 그릇된 철학에 기대어 여러 모습으로 위장을 하며 인간 자유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무신론자들이 세계를 접수하려고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반면에,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은 그들의 적들이 하는 일에 불평만 늘어놓을 뿐이지 그들에 대항해 싸우려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정부의 정책 과정에 깊이 관련되어 있고 또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 정부에 크게 관심이 없거나 절망적이라만큼 낙담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불리한 환경 때문에 정부의 정책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관심과 냉담은 관료들의 부패를 키운다. 민주주의가 주는 권리들을 사용하는 데에 무관심하거나 실패하면 자연스럽게 독재가 급속히 자라나게 된다.

선한 사람들이 정계에서 발을 빼면 나치 체제 하의 독일과 오늘날 위성 국가들에서 보듯이, 소수의 전체주의자들이 정부의 엄청난 권력들을 독점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사람들이 정부의 요직들을 차지하여 종교와 표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 생활의 민주적 발전을 증진하면서 천부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수호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비그리스도교 국가에서 그리스도인 정치인은 사실상 지극히 힘든 과제를 안고 있다. 그는 극복해야 할 수많은 장애들, 주로 정치적 사회적 악들과 불가피하게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 정치인은 그리스도교 원칙들이 밝혀주는 가르침에 따라 뛰어난 지혜와 결연한 투지로 이러한 악들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러한 숭고한 대의에서 그가 행정가든 입법가든 법률가든 관

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정당의 지도급 인사들도 그리스도교 원칙들을 정당 정책에 주입하고자 노력하고, 정부에 그것들을 시행하도록 촉구함으로써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은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명을 수행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국민들은 지역 공무원들과 의원들, 입법자들에게 그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국민들은 지방 선거와 전국 단위의 선거에 적극 참여하고, 시민 단체에 합류하며, 그 안에서 개인과 국민의 천부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활동하여야 한다.

가톨릭 교육자들의 사도직

신세대를 교육하는 일보다 더 크고 고귀한 국가의 사명은 없다. 교사들은 젊은이들에게 문명의 유산을 전해 주는 통로이다. 젊은이들의 이상과 삶의 방식이 국가와 세계의 미래의 흐름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교사들은 개인의 모범과 영향을 통하여 수많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행동 방식을 정해 줄 위치에 있다. 이는 특히 그리스도인 교사가 이교 사회에서 비그리스도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할 때 그러하다.

교육의 참된 목적은 학생들의 마음과 정신을 단련하고 함양하며, 그들에게 진리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를 심어주는 데 있다. 좋은 교육은 삶의 궁극적 목적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립학교나 비그리스도교 사립학교의 가톨릭 교사는 젊은이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교 진리를 전파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하느님의 법을 어기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고, 언젠가는 그들이 삶의 모든 활동을 의존하게 될 인격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 마음에 새겨주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인 교사는 학생들의 마음속에 진리를 심어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계에 만연해 있는 그릇된 신조들을 반박하여야 한다.

특히 비그리스도교 국가들의 공립학교에서는 ‘정교 분리’때문에 종교 교육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가톨릭교회에서 운영하는 소수의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아이들과 학생들이 종교의 진리들에 대해 들을 기회가 거의 없다. 가톨릭 학교들에서조차도 정규 수업 시간에는 종교 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간격을 메울 교육의 과제는 교실 밖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곧, 교사가 학생들의 인도자이자 친구로서 학교 동아리, 캠퍼스, 학생 활동들에서 학생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젊은이들은 불타는 이상으로 충만해 있다. 억압받는 위성 국가들의 젊은이들, 청년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저항은 참된 자유와 독립에 대한 의지, 단순한 물질적 풍요와 안녕보다 더 높고 이상적인 무언가를 추구하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그리스도교 이상들에 젖어 있는 그리스도인 교육자들과 젊은이들은 비그리스도교 국가에서도 하나의 세력이 될 것이다.

노동자 계층

가톨릭교회는 때때로 가난한 이들과 극빈자들에게는 거의 관심이 없는, 자본주의자들과 귀족들을 위한 ‘촛대’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러한 종류의 비난은 공산주의 선전원들이 자주 되풀이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지식인들, 특히 비그리스도교 국가들의 지식인들도 그러한 비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선입견은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증진하는 가톨릭의 입장을 명확히 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만 바로잡을 수 있다. 아울러 그리스도 스스로 기꺼이 노동자가 되기를 선택하셨고, 교회가 전 세대와 전 세계에 걸쳐 근면하고 가난한 이들의 복지에 엄청나게 큰 공헌을 해왔다는 점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은 아버지이신 하느님 아래 한 형제자매라는 생각은 모든 사람 안에 자신의 인격적 존엄과 영원한 운명을 인식하게 해 주므로, 비그리스도인 노동자 세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노동 문제들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노동자 세계에 전달하여야 한다. 가톨릭 노동 지도자들은, 능력과 상황이 허락하는 한, 교황들의 사회적 회칙들에 담겨있는 기본 원칙들을 전파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일부 비그리스도교 국가들의 노동 운동은 초기 단계에서는 흔히 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놓여 있어, 노동 기구들은 기능과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그리스도인 노동 지도자들은 조직책, 상근 관리자, 노동 변호사, 교육자, 언론인으로서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사심 없는 봉사를 함으로써 이 점에서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노동 지도자의 기본적 동기와 태도로서, 그리스도인 노동 지도자는 임금 노동자에게 교회가 그의 복지 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노동자는 정당한 임금을 주장하고 자신의 이익을 보장할 노조를 조직할 권리가 있으며, 정의와 선의, 공정 거래의 충실한 적용은 인간의 자연권이 온당하게 실현되도록 보장하는 데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기술적 도움

지금까지 비그리스도교 국가들에서 사실상 관습적으로 해 오던 교회의 선교 활동 방식은 교회가 몇몇 일시적인 구호 활동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의 물질적 관심은 도외시한 채 오로지 그들의 영적 행복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었다.

비그리스도인들의 생각에, 특히 그들이 만성적인 빈곤 상태에서 살아갈 때, 종교는 흔히 그들의 고된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멀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이 가난한 이들의 참된 친구이며, 실질적인 지도와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의 현세적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필요한 형태의 도움 중의 하나는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 훈련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숙련된 노동자가 다양한 거래에 대비해 훈련받을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기. 이는 돈 보스코가 정한 양식에 따라 살레시오회에서 이미 실천하고 있다.

나) 직업 훈련소에서 양성받는 사람들의 리더십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장비를 제공하기.

다) 직업별 협동조합, 특히 농민과 노동자들의 협동조합을 조직하도록 돕고,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끌어주기.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소규모로 시작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한 가톨릭 지도자들과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더욱 긴밀한 유대는 분명히 참된 교회 정신을 더욱 잘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해 줄 것이며, 생활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해당 국가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가톨릭 사회 봉사의 역할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병자의 고통을 완화하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어,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복음에 귀기울이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의 개념 자체는 그리스도께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그리스도교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이 가난한 이들에게 전해진다.

사회악의 근본 원인은 유물론적 무신론 철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곧, 세상 재화의 열렬한 추구, 더 많은 소유와 쾌락에 대한 갈망, 더 큰 권력에 대한 야망,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날마다 목격하듯이 자연히 무수한 범죄와 악들을 양산한다. 성적 영역의 남용에서 비롯되는 악들만을 인용하자면 출산 억제, 낙태, 불임, 이혼, 축첩, 매춘 등을 들 수 있다. 가장 개탄스러운 사실은 이러한 악들 중

의 일부는 지극히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많은 비그리스도교 국가들에서 법으로 적극 장려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악들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다름 아니라 절제, 극기, 관용, 정숙과 같은 참된 그리스도교의 덕들을 전파하는 것이다. 가톨릭 입법가들, 판사들, 의사들은 그들의 공적인 자격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서 상황이 허락하는 한 그리스도교 윤리 원칙들을 양심에 따라 굳건히 수호할 의무가 있다.

의료와 구호 영역의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세계 어떤 기관도 가톨릭교회 기관들보다 더 많은 업적을 쌓지는 못했다. 이는 특히 비그리스도교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내 조국의 예를 들자면, 샤르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가 60년 넘게 모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서울의 성 바오로 고아원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이 고아원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또 다른 훌륭한 복지사업은 부산에 있는 메리놀 수녀회가 운영하는 자선 병원으로서, 이 병원은 매일 평균 천 명 이상의 외래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온 나라의 관심을 끄는 또 다른 굉장한 사업은 미국의 가톨릭복지협회(National Catholic Welfare Conference)가 제공하는 구호 사업이다. 전쟁 기간 동안 수백만 파운드의 식량과 의복이 교회 경로들을 통하여 가난한 피난민들에게 배급되었다. 이러한 구호품들을 감사히 받은 사람들은 기부자들의 영적 동기를 깨닫지 않을 수 없다.

말의 힘

세계는 최근 나치와 공산주의자들이 세계 정복이라는 그들의 사악한 계획에 사람들을 완전히 혹하게 하면서 말의 힘을 가장 놀랍도록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보아 왔다. 유물론, 전체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그릇된 철학의 옹호자들은 자신들의 선전 목적을 위하여 언론 기관들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그에 반해 그리스도교의 대응은 특히 비그리스도교 영역에서 이러한 선동의 사악한 결과를

상쇄하기에는 전혀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개탄스러운 경향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종 언론에서 그리스도교 캠페인을 활발히 펼치는 일이 절박하다.

가톨릭 편집자들, 전문기고가들, 기자들은 도덕적으로 지극히 중요한 문제들에 관한 가톨릭의 원칙들을 소개하고, 철학적 오류들의 가면을 벗겨내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가톨릭 일간 신문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출판물보다 더 강력하게 독자들의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곳 서울에서 우리는 가톨릭 회사가 후원하는 한 일간지의 놀랄만한 성공을 보았다. 이 신문은 정치적 도덕적 문제들에 관하여 사람들의 감정과 의견을 솔직하고 용기 있게 표현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대중의 강력한 지지로 이 신문은 나라 전체에서 두 번째로 높은 부수를 올리고 있다. 이 신문은 일반 대중에게 가톨릭적인 모든 것을 소개하고 전파하고 옹호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은근히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나라의 라디오 전파 분야에서 또 하나의 매우 성공한 사업은 개신교 교회들의 방송 활동이다. 일상의 프로그램들을 교묘히 배치하여, 성경 시간들을 가벼운 연예 오락 사이에 섞어 놓고 있어 수많은 청취자들이 그 프로그램들에 주파수를 맞추게 한다.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출간되는 서적, 팸플렛, 정기간행물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넓은 영역에서 기여할 수 있게 해준다. 신념이 깊고 자기 헌신이 투철한 사람들은 이 중요한 문자 언어의 사도직으로 부름 받고 있다. 교황 성하의 회칙들과 여러 선언문들이 국가 지도자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의 일상어로 번역되어 그들이 그리스도교의 삶의 철학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한 건전한 철학이 없다면 그들은 세속주의, 유물론, 공산주의와 같은 그릇된 삶의 철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문자 언어의 영역은 참으로 광대한데도 활용할 수 있는 재능은 너무도 적고 개발도 거의 안 되어 있어, 특히 이 나라에서 우리는 활용 가능한 수단과 인력의 필요성과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세계적 위기와 가톨릭

가톨릭 신자들이 그들 국민의 사회-정치 생활을 그리스도교화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은 그 외에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의 생명력과 강인함에 대한 깊은 믿음이다. 그러한 믿음은 압도적 우위에 있는 수(數)와 수단, 이익에 맞서 소수가 투쟁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극동의 비그리스도교 국가들에서 오랜 사회적 윤리적 질서와 사회 종교적 질서가 급속히 와해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에서 자연법의 가치들이 이러한 와해 과정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지만, 무너져가는 이러한 구조를 지탱해 주는 더욱 심오한 철학적 윤리적 종교적 뿌리와 가치들이 없다. 인간은 뿌리 채 흔들리고 있고, 개인주의화되고 있으며,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힘에만 의존하여 20세기 정신의 유혹에 맞서고 있다.

이들 비그리스도교 국가들은, 서구 ‘자본주의’의 옷으로 위장하든, 노골적인 공산주의 형태를 띠든, 현재 신(新) 이교적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영향을 온전히 받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스스로는 이러한 신이교주의의 영향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악의 공격에 필사적으로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인 남녀들의 노력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적 토대를 쌓아올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깊은 초자연적 믿음, 과업에 대한 사심 없는 헌신, 하느님 섭리에 대한 절대 꺾이지 않는 희망만이 절망과 낙담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는 그들의 노력을 지탱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망애(信望愛)의 정신이야 말로 그리스도교 신앙이 사회-정치 생활과 비그리스도인들의 미래에 깊이 또 지속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해 줄 것이다.

교회와 신생 국가들

우리 시대는 많은 비그리스도교 국가들에서 자유와 독립 정신이 새롭고 강하게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신흥 국가의 모든 젊은이들에게는 완전한 평등에 대한 깊은 열망이 있다.

세계는 점점 더 작아지고 모든 인종과 국가의 사람들 간의 접촉은 더욱더 긴밀해지고 있다. 더욱 큰 국제적 연대를 통하여 사람들 사이의 친교와 공동체를 증진시키려는 열망이 뚜렷하다.

사람들 사이의 더욱 긴밀한 유대에 대한 이러한 열망과 참 평등에 대한 염원은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이다. 교회의 입장은 교회의 가르침과 적극적 지원을 통하여 이러한 염원들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아버지이신 하느님 아래 인간은 한 형제자매라는 교회의 가르침은 인종과 피부색,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는 평등한 존엄과 영원한 운명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을 더욱 열심히 지속적으로 비그리스도인, 특히 지식층의 형제자매들에게 알리고 이해시켜야 한다.

가톨릭교회가 자체 조직 안에서 펼치는 가르침과 실천을 통하여, 또한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진실하고 애정 어린 태도를 통하여 보여주는 일치와 평등의 예보다 더 좋은 예는 찾아볼 수 없다.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 신비체를 다스리는 우두머리인 교황, 그리고 한 머리 안에 결합된 몸의 지체들인 교회의 구성원들은 전 세계에 일치와 친교의 놀라운 본보기를 보여준다.

아버지이신 하느님 아래 인간은 참으로 한 형제자매라는 사실이 이교의 땅들에서 교회의 영웅적인 선교 노력을 통하여, 특히 비그리스도인 형제들에 대한 수도자들과 평신도들의 자선과 구호 활동, 사심 없는 헌신을 통하여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전 세계 평화의 정신적 지도자인 교황 성하의 탁월한 위치, 정의와 평등, 인간 존엄과 사랑에 대한 교회의 지속적 가르침은 그 대의를 위한 교회의 섬 없는 노력으로 뒷받침되어, 오늘날 전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곧 영적 활기를 되찾는 일에 대한 가장 뛰어난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